



“글이기는 하지만 차마 입에
답을 수 없는 욕을 들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인터넷 리플은 네티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새로운 토론문화인가, 몰교양의 온상인가

최근 인터넷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리플 때문에 울고 웃는 네티즌이 늘고 있다. 이러한 리플문화에 대해 새로운 토론문화의 장을 열었다는 리플 예찬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리플은 언어의 낭비요, 사이버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반박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리플에 대한 깊은 논란으로 시끄러운 인터넷 공간에서 리플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네티즌들을 발언대에 세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인터넷 리플의 출현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남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의견부터 조그만 것이라도 크게 부풀리길 좋아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생각나는 대로 올리는 글이 대부분인 만큼 휘발성 성격이 강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등 하나의 글에 달리는 여러 성격의 리플만큼이나 출현 이유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리플이 달린 글로 유명한 '쿠기닷컴'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김유식 씨는 리플문화는 갑자기 생겨버린

문화가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 발전한 형태라고 말한다. 인터넷이 액션과 리액션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리플문화가 존재케 되었다는 것이다.

저급 리플 문제 심각한 수준

서강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문원주 씨(25세)는 인터넷상에서의 리플문화가 토론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데 주목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대한 리플을 달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의견을 표현하는지 배울 수 있다”며, “이런 태도가 실생활에서도 나타나 동아리 토론시간이나 발표수업시간에도 의견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에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보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흥분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리플문화에 익숙해지고 부터는 대면 토론에서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웹이전시 '모라기'를 운영하고 있는 채욱 씨(28세)는 “대다수의 인터넷 사이트가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익명성을 무기로 수준이 낮고 감정에 치우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상식이하의 글들 사이에서 과연 성숙한 토론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특히 “포털사이트 뉴스 하단에 달린 리플은 저질의 언어유희로 밖에 표현이 안 된다”며 “이런 저급한 리플은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월간 KTX 기자 김지영 씨(26세)는 뉴스의 “성격에 따라 리플의 성격과 수준도 달라지는 게 생리”라며 “지시한 연예뉴스 대신 정치나 사회의 중요 이슈를 다룬 뉴스 밑에는 전문가 못지 않은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도 많이 붙는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리플은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때론 낯모르는 사람이 진심을 다해 건네는 한 줄의 리플이 친한 친구가 곁에서 해주는 말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파급효과 엄청난

인터넷 리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사람들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악플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통쾌한 어조와 독설 그 자체만으로도 자극이 되어 악플을 즐겨 읽는다는 카피라이터 이지원 씨(30세)는 “악플 속엔 그 시대를 풍미하는 유머와 풍자가 담겨 있다”며 “인터넷 글쓰기가 활발해지면서 악플 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뛰어난 악플들은 그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받아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소룡을 합성한 얼굴로,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악플러의

선두주자에 서있는 ‘싱하형’을 예로 든 이지원 씨는 “싱하형의 독특한 어투, 냉소적인 내용에 반한 네티즌들이 있어 싱하형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반약 싱하형이 지금과 같이 거침없는 캐릭터가 아니었다면 네티즌들의 반응도 시원찮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악플 세례를 당해 본 사람들은 고개를 절로 흔들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토론방에 개인의견을 올렸다가 악플은 물론 협박 e메일까지 줄줄이 받았다는 취업준비생 김민수(24세)씨는 “악플의 대부분이 나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욕설이었다”며 “몇 번 반박 의견을 올려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논리와 관계없는 악플만 난무해 토론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이기는 하지만 차마 입에 답을 수 없는 욕을 들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급기야는 e메일박스를 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이 올린 글을 삭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갔다며 손사래를 쳤다.

건전한 리플문화 필요해

인터넷은 네티즌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이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주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쉬운 사용과 부담없는 비용을 무기로 사용자들을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리플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김유식 씨의 말처럼 리플문화는 인터넷이 이끌어낸 최고의 트렌드로서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터넷 리플문화의 미래는 네티즌의 태도에 달려 있다. 리플로 이어지는 토론은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대면 토론이 아닌데다 익명을 가장해 자유롭게 의견을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의 의식수준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동방예의지국 국민이라는 미덕을 잊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며 본인의 의견을 내세운다면 보다 성숙한 리플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네티즌의 건전한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리플문화의 청사진을 기대해본다. ■